

중소 실 상여금 지난해보다 10만원 줄었다

전국 867곳 조사 63% 지급 계획...평균 65만원

설 자금 5750만원 부족...25.3% "대출도 어렵다"

#광주 하남공단에 위치한 한 기계공업 업체 대표 박씨는 다가오는 설이 반갑지 않다. 지난해 초까지는 그나마 경기가 좋아 종업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상여금을 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불가능 할 것 같다. 어떻게든 자금을 융자 받아 상여금을 주고 싶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광양에서 목재가공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도 고민이 많다. 매출액 위주의 대출 관행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매출액을 올리는 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대출 받으려다가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꼴이어서 난감해졌다.

이번 설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게 될

상여금이 지난해보다 10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로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사정도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7~15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867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62.6%로 지난해(63.8%)보다 1.2%포인트 줄었다. 상여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업체가 50.9%로 가장 많았지만 액수를 줄이겠다는 업체는 11.0%였고 이에 비해 액수를 늘리겠다는 업체는 0.7%에 그쳤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줄 예정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

여금은 1인당 평균 65만2000원이었다. 지난해(74만2000원)보다 9만원 적은 금액이다.

정률로 지급한다는 업체들 역시 기본급 대비 54.1%를 주겠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지급 비율이 8.9%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이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1750만원으로 지난해(2억840만원)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족한 금액은 575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6.4%였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대출받아 조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를 꼽은 업체가 75.1%로 가장 많았고 판매대금 회수 지연(35.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매출감소를 꼽은 업체의 비율은 서비스업(87.2%)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서비스업 관련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석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업체는 전체의 25.3%로 지난해(27.4%)보다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제조분야 중소기업 한 대표도 "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매출실적이 저조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R&D(연구개발)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기변동, 기술개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매출감소를 겪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성, 기술력 위주의 기업평가를 강화하고 선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71.69 (-21.74)
- ↓ 금리 (국고채 3년) 1.60% (-0.02)
- ↓ 코스닥 678.85 (-2.58)
- ↑ 환율 (USD) 1204.20원 (+10.00)



나주 혁신도시 최고 상권 '리치타워'

한전 본사 앞... 대단지 아파트 수요 갖춘 명품상가

토담건설 본격 분양

토담건설이 나주혁신도시에 시공한 '명품상가' 리치타워(조감도)가 준공이 완료됐다.

토담건설은 나주혁신도시 핵심권역 메인대로변에 위치한 시공전부터 주목을 받아온 리치타워가 최근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리치타워는 나주혁신도시 최대 기관인 한전 본사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 대단지 아파트의 수요까지 갖추고 있다. 또 나주혁신도시 대규모 상가 중 첫번째 입주되는 준공상가여서 투자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리치타워는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에 220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로망 역시 뛰어나다. 1층 상가는 은행과

편의점, 부동산,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하고 2층부터는 패밀리레스토랑, 마용실, 병원, 학원, 키즈카페, 휘트니스, 뷔페 등이 들어선다. 6~8층은 이전기관과 공기업 협력업체 등의 사무실이 입점할 예정이어서 수익성과 안전성 모두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나주혁신도시 서북부의 공공기관이나 공동주택과도 가까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잠재가치가 월등하다. 나주혁신도시 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위리적 장점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고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부담없이 분양받을 수 있어 지금이 상가투자의 적기"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홈페이지(http://naju.todamhuros.com)나 분양상담 전화(1800-223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설 성수품은 전통시장서"

광주·전남중기청 릴레이 캠페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25일 남광주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설 전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이 캠페인은 28일 화순전통시장, 2월3일 목포동부시장 등으로 이어진다.

25일 행사에서 김영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등 참여기관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용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파워·연비...더 강력해진 'K7'이 왔다

기아자동차(주)는 26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형근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ALL NEW) K7'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식 기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박한우 기자동차 사장, 이형근 기자동차 부회장, 피터 슈라이어 현대기아차 디자인담당 사장.

이와 관련 운영현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지역경제 내부에서 순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필두로 대형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비율 준수 실태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해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도 지시했다. /윤영기·김대성기자 penfoot@

광주 건설업체 지난해 수주액 전국 최하위

267곳 1조2484억...운장현 시장 "지역업체 수주 확대책 강구"

지난해 광주지역 건설업체의 평균 수주액이 46억원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26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지역 267개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1조2484억원이었다. 전년도 수주액 8257억원보다 늘었지만 전국

수주액 119조4735억원의 1%에 그쳤다. 17개 시도 중에는 제주 1조633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8조2267억원, 울산이 8조1788억원, 인천 6조6274억원, 대구 4조4084억원, 세종 2조2480억원,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1조5380억원이다.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46억7000만원으로 전년도의 32억원보다 많아졌지만, 전국 평균 수주액 106억원의 44%에 수준에 그쳤으며 광역시 중 최하위였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착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달까지 건설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면 운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이 사실상 어

려운 만큼 원안대로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운영현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지역경제 내부에서 순환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필두로 대형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 비율 준수 실태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해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도 지시했다. /윤영기·김대성기자 penfoot@

광주세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명절을 맞아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한다.

세관은 주요 설 성수품 신속통관 지원과 관세 환급금 선지급 및 납기연장 등 특별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의 적기 공급과 업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상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신속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우범성이 없는 수출용 원재료, 제수용품, 생필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최소화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 신청 건은 당일엔 환급금 선지급하고 설 연휴 이후에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세 환급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자금정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5년도 납부세액의 3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등 온카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일부지역 제외)

절단목

쪼갬목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장작구이, 캠핑용 등 각종 용도별 생산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